

# 2016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

윤 자 영\*

## I. 머리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 과제로 제시된 ‘고용률 70% 로드맵’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2013년 6월에 발표된 전략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제시했다(관계부처합동, 2014).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뿐만 아니라 예방 정책에도 초점을 두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대폭 확충,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초기에 쏟아져 나온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기초 속에서 2016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미세 조정이 추가되었다.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일자리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2016년 여성 노동시장의 성과와 특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2016년 여성 노동시장 주요 지표

2016년 현재 여성 고용률은 50.2%, 실업률은 3.7%, 취업자수는 11,100천 명이다. 2013년 이후 1.5%p 증가했지만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한 여성 고용률 10% 제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일자리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jayoungy@cnu.ac.kr).

〈표 1〉 여성 노동시장 참여 추이(1~10월)

(단위: 천 명, %)

	2013	2014	2015	2016
취업자수	10,480	10,750	10,950	11,100
고용률	48.7	49.5	49.9	50.2
실업률	2.9	3.6	3.7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표 1 참조).

2016년에 전년동기대비 여성 취업자수는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고용률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내년 여성 고용률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표 2>에 제시된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2016년(1~10월 평균) 15세 이상 여성 생산인구는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는 1.4%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15세 이상 남성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도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남성의 절대적인 취업자수와 증가율보다는 높다. 남성 평균 취업자수가 2016년 1~10월 전년동기대비 140천 명 증가하고, 2015년 1~10월 전년동기대비 130천 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2016년 여성 취업자수는 남성보다 좀 더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 증가율은 2016년 1~10월 전년동기대비 1.4%를 기록한 반면 남성은 2016년 1~10월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이 0.9%에 머물렀다.

여성 취업자수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12년에 연간 평균 10,292천 명이었던 여성 취업자수는 2015년 10,967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0월의 여성 평균 취업자수는 11,100천 명으로 2015년 1~10월 10,950천 명보다 150천 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수 증가는 정체 내지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감 추이를 보면, 2015년 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여성 취업자수는 대체로 증가세가 정체되다가 2016년 1월 이후 취업자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2016년 1~10월 평균 여성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50천 명 증가하여 2015년 1~10월의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인 200천 명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6년 1월 이후 취업자수 증가폭의 완화로 15~64세 여성 고용률도 2016년 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 기간 남성 고용률은 2016년 상반기까지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감소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고용률이 증가하여 여성 고용률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노동시장 침체로 구직 중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여성 실업자는 2016년 1~10월 평균 425

천 명이며 2012년 이후 같은 기간 여성 실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6년 1~10월 평균 실업률은 3.7%를 기록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2015년 1~10월과 2016년 1~10월 각각 0.2%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이끈 것은 주로

〈표 2〉 성별 주요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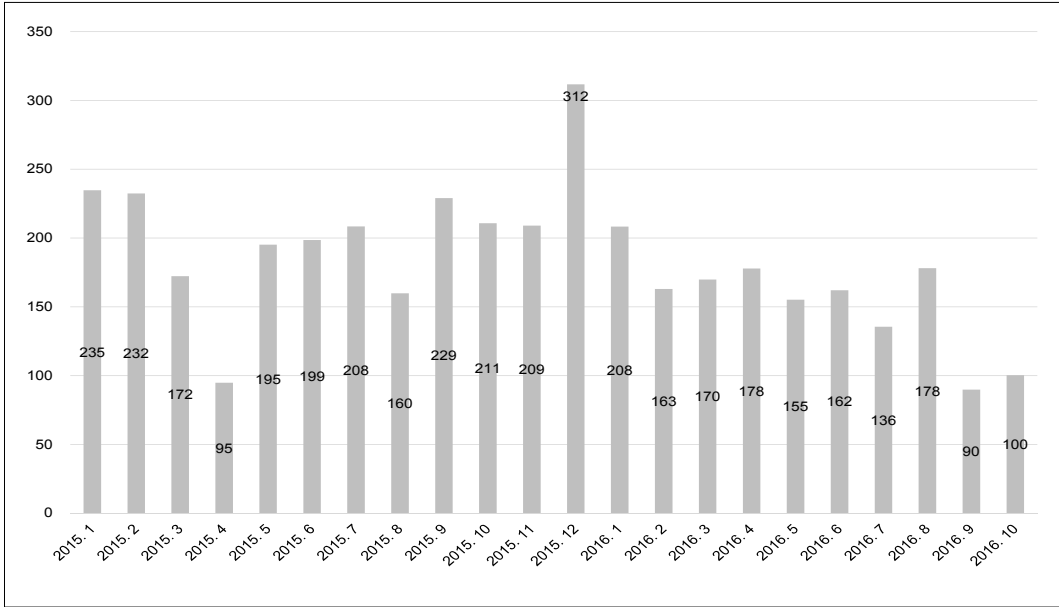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2	2013	2014	2015	2012 1~10	2013 1~10	2014 1~10	2015 1~10	2016 1~10
여성	생산가능인구	21,250	21,517	21,717	21,958	21,230	21,500	21,700	21,940	22,120
	(증가율)		( 1.3)	( 0.9)	(1.1)		( 1.3)	( 0.9)	(1.1)	(0.8)
	경제활동인구	10,607	10,800	11,147	11,371	10,627	10,793	11,147	11,368	11,525
	(증가율)		( 1.8)	( 3.2)	(2.0)		( 1.6)	( 3.3)	(2.0)	(1.4)
	취업자	10,292	10,492	10,758	10,967	10,300	10,480	10,750	10,950	11,100
	(증가율)		( 1.9)	( 2.5)	(1.9)		( 1.7)	( 2.6)	(1.9)	(1.4)
	참가율	49.9	50.2	51.3	51.8	50.1	50.2	51.4	51.8	52.1
	고용률	48.4	48.8	49.5	49.9	48.5	48.7	49.5	49.9	50.2
	실업자	316	309	389	405	327	313	397	418	425
	(증가율)		(-2.2)	(26.0)	(4.1)		(-4.5)	(27.0)	(5.3)	(1.6)
실업률	3.0	2.9	3.5	3.6	3.1	2.9	3.6	3.7	3.7	
비경제활동인구	10,642	10,708	10,567	10,583	10,610	10,700	10,550	10,570	10,590	
(증가율)		( 0.6)	(-1.3)	(0.2)		( 0.8)	(-1.4)	(0.2)	(0.2)	
남성	생산가능인구	20,325	20,583	20,792	21,058	20,310	20,570	20,780	21,040	21,270
	(증가율)		( 1.3)	( 1.0)	(1.3)		( 1.3)	( 1.0)	(1.3)	(1.1)
	경제활동인구	14,888	15,073	15,389	15,547	14,902	15,058	15,386	15,543	15,717
	(증가율)		( 1.2)	( 2.1)	(1.0)		( 1.0)	( 2.2)	(1.0)	(1.1)
	취업자	14,383	14,575	14,842	14,975	14,390	14,550	14,830	14,960	15,100
	(증가율)		( 1.3)	( 1.8)	(0.9)		( 1.1)	( 1.9)	(0.9)	(0.9)
	참가율	73.2	73.2	74.0	73.8	73.4	73.2	74.0	73.9	73.9
	고용률	70.8	70.8	71.4	71.1	70.9	70.7	71.4	71.1	71.0
	실업자	504	498	548	572	512	508	556	583	617
	(증가율)		(-1.2)	( 9.9)	(4.3)		(-0.7)	( 9.5)	(4.9)	(5.8)
실업률	3.4	3.3	3.6	3.7	3.4	3.4	3.6	3.8	3.9	
비경제활동인구	5,437	5,513	5,409	5,519	5,409	5,510	5,389	5,495	5,547	
(증가율)		( 1.4)	(-1.9)	(2.0)		( 1.9)	(-2.2)	(2.0)	(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 여성 취업자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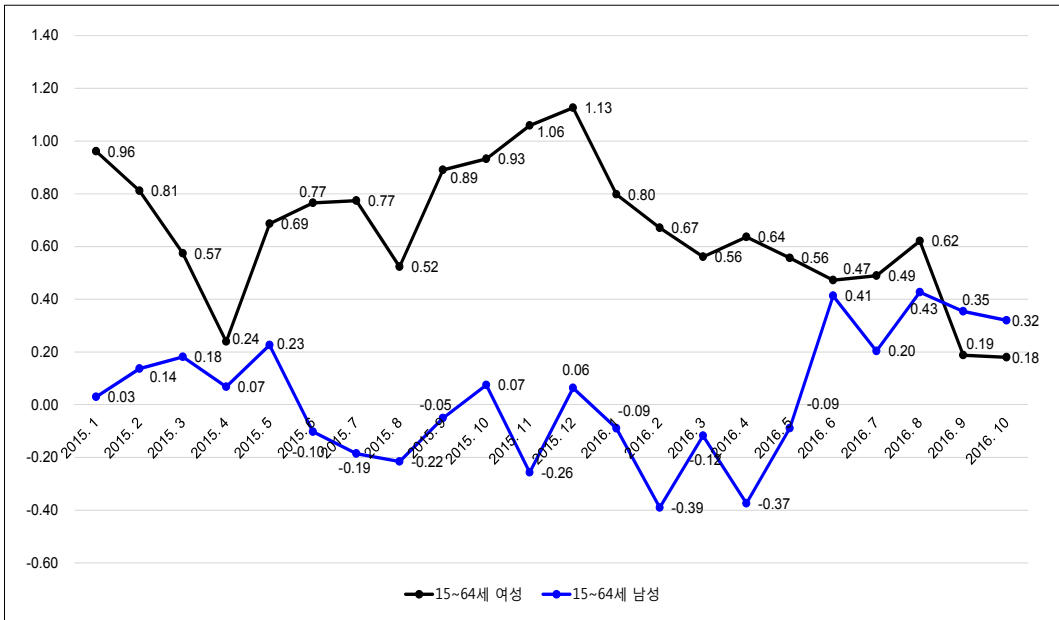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15~64세)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로’로 80천 명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유는 ‘가사’로 20천 명이 증가하였다.

### Ⅲ. 2016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

본장에서는 2016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2016년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55세 이상 중고령자이며, 40대 이하 중장

〈표 3〉 여성 연령계층별 취업자수와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2	2013	2014	2015	2012 1~10	2013 1~10	2014 1~10	2015 1~10	2016 1~10
취업자수	15~19세	133	125	134	135	133	127	136	136	130
	20~24세	757	761	807	839	757	758	806	838	838
	25~29세	1,133	1,094	1,083	1,079	1,141	1,095	1,084	1,073	1,099
	30~34세	1,055	1,106	1,108	1,107	1,043	1,107	1,108	1,109	1,061
	35~39세	1,059	1,036	1,032	1,025	1,064	1,031	1,030	1,019	1,084
	40~44세	1,341	1,343	1,324	1,308	1,339	1,344	1,328	1,308	1,273
	45~49세	1,355	1,358	1,399	1,438	1,357	1,355	1,393	1,433	1,457
	50~54세	1,273	1,327	1,364	1,385	1,270	1,322	1,362	1,386	1,365
	55~59세	883	957	1,032	1,098	879	949	1,026	1,091	1,146
	60~64세	522	558	600	666	519	559	597	661	718
65세 이상	784	829	878	887	794	835	885	893	931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수 증감	15~19세		-5.8	6.5	0.9		-4.7	7.1	0.6	-5.0
	20~24세		0.5	6.1	4.0		0.2	6.4	3.9	-0.1
	25~29세		-3.4	-1.0	-0.4		-4.0	-1.0	-1.0	2.4
	30~34세		4.8	0.2	-0.2		6.1	0.1	0.1	-4.3
	35~39세		-2.2	-0.4	-0.6		-3.1	-0.1	-1.1	6.4
	40~44세		0.1	-1.4	-1.2		0.4	-1.2	-1.5	-2.7
	45~49세		0.2	3.0	2.7		-0.1	2.8	2.9	1.7
	50~54세		4.3	2.8	1.5		4.1	3.0	1.8	-1.5
	55~59세		8.3	7.8	6.4		8.0	8.1	6.3	5.0
	60~64세		6.9	7.6	10.9		7.6	6.9	10.7	8.6
65세 이상		5.7	5.8	1.0		5.1	6.0	0.9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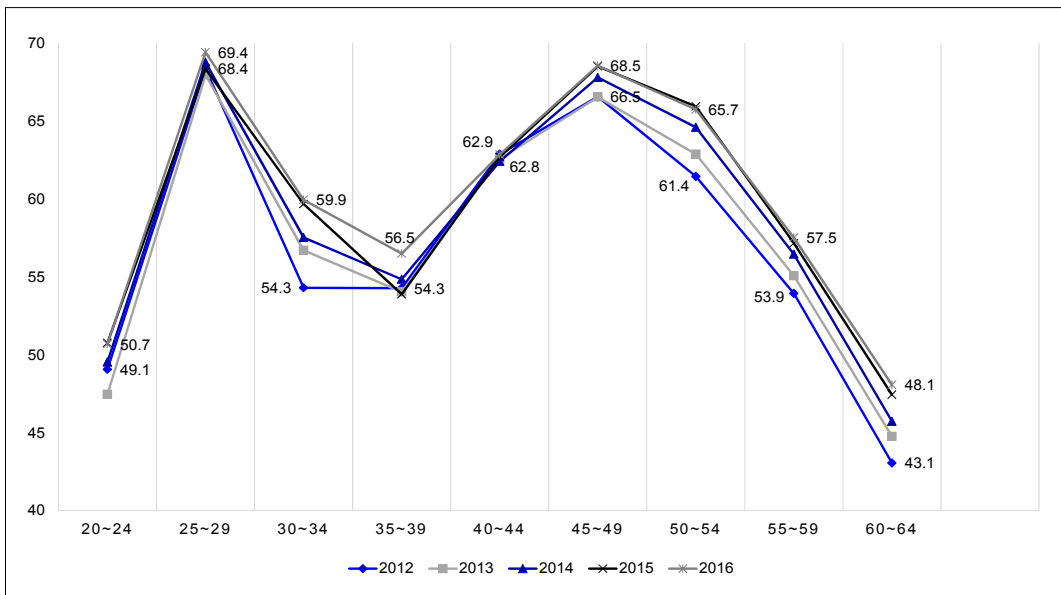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년층에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패턴 없이 취업자수가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수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연령층은 40대 후반과 55세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60~64세 여성은 2013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가장 큰 연령대였으나 2016년 1~10월 사이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65세 이상 여성은 2016년 1~10월에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4.2천 명 증가했다. 결혼, 출산, 육아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는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취업자수 변동에서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30대 초반은 2013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정체하다가 감소했지만, 30대 후반은 같은 기간 취업자수 하락폭이 완화되었다가 2016년 1~10월에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어 노동시장 참여가 용이해진 40대 여성은 30대 여성보다 취업자수가 더 많지만, 지난 4년간 40대 초반 여성 취업자수의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은 커지고 있고 40대 후반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50대 후반 여성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가운데,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출산육아기를 거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행위가 뚜렷한 패턴을 보이며 정착하지 못했는데, 이들 연령층을 표적으로 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효과가 취업자수 증가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작년에 비해 2016년 고용률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연령층은 30대 후반 중년층이다. 30대 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M-자형의 곡선의 저점이 2016년에 상당히 높아졌다(그림 3 참조).

[그림 3] 여성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1~10월 평균)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여성 결혼상태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12	2013	2014	2015	2012 1~10	2013 1~10	2014 1~10	2015 1~10	2016 1~10
여성	미혼	47.9	47.2	48.7	50.4	48.0	47.2	48.6	50.2	50.8
	유배우	51.3	52.0	52.4	52.4	51.4	51.9	52.5	52.4	52.8
	이혼/사별	38.4	39.1	40.2	40.6	38.5	39.2	40.2	40.6	40.4
30~34세	미혼	80.5	80.5	79.7	82.7	80.3	80.6	79.4	82.6	82.0
	유배우	45.2	47.3	48.4	48.8	44.6	47.3	48.4	48.9	48.5
	이혼/사별	73.0	69.5	67.7	76.7	73.0	69.3	66.4	74.8	85.6
35~39세	미혼	76.9	77.1	76.5	75.3	76.6	77.2	76.1	74.9	76.5
	유배우	50.4	50.8	50.7	49.8	50.6	50.4	50.7	49.6	52.3
	이혼/사별	72.4	78.8	84.9	73.0	71.6	77.8	86.6	73.4	7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30대 후반의 고용률 증가는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일 수도 있고, 미혼율의 증가 효과일 수도 있다. <표 4>에 의하면, 30대 여성을 결혼상태별로 고용률을 파악해 본 결과, 최근 30대 후반의 고용률 증가는 미혼과 유배우 여성 모두에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30대 후반의 고용률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부는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 2012년 이후 40대 이후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의 약진이 두드러지지 만 2015년과 2016년 사이 고용률의 증가는 이전 시기에 비해 미미했다.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수는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0월 전년동기 대비 임금근로자수는 225천 명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수는 70천 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2016년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2015년 전년동기대비 증가폭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2016년 전년동기대비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폭이 커진 데 기인한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에서 2016년 은 2015년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근로자수의 증가폭이 더 컸고, 임시직도 증가폭이 커졌 으나 상용직에 비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수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는 40대와 50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30대 초반 청년 여성에게서 상용직은 감소하고 일용직은 증가하여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림 4]에 의하면, 2013년 1월~2016년 10월 기간 동안 상용직 증가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주도했다. 20대와 30대 여성의 상용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적고 심지어 감소하기도 했다. 50대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30대 초반은 2015년 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근로자 수의 감소폭이 커지다가 최근에는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가세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표 5〉 여성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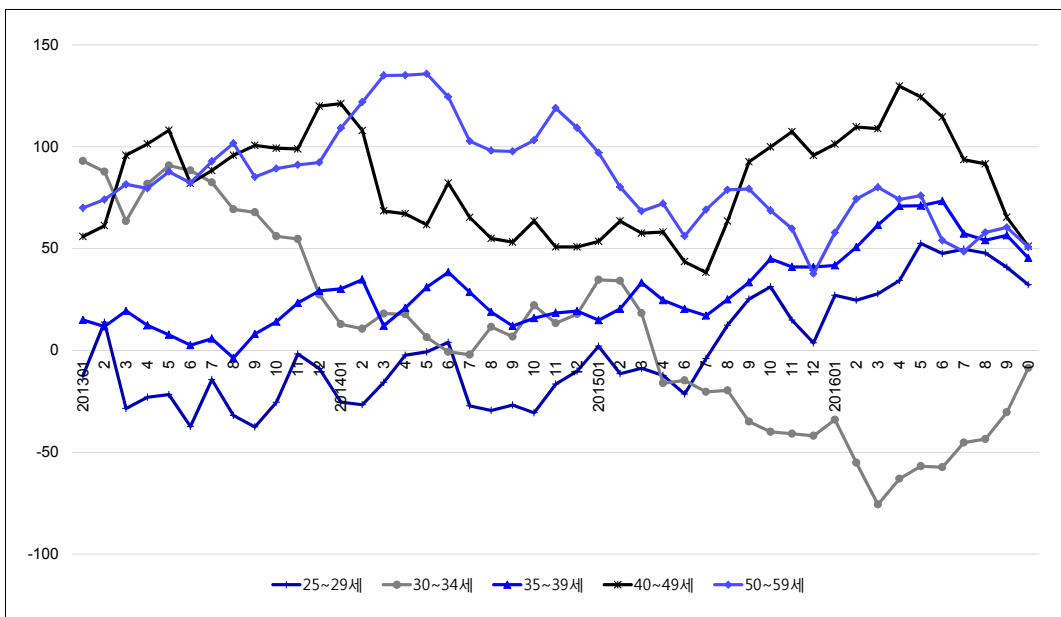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감			1-10월		1-10월 증감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5	2016	2015	2016
임금근로자	7,841	8,118	8,381	222	277	263	8,343	8,568	245	225
상용직	4,264	4,525	4,731	278	261	206	4,708	4,951	200	243
임시직	2,891	2,946	3,018	-20	55	73	2,997	3,054	53	57
일용직	686	647	632	-36	-39	-15	638	563	-8	-75
비임금근로자	2,652	2,642	2,584	-22	-10	-58	2,605	2,535	-52	-7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54	359	378	13	5	19	380	377	21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40	1,232	1,211	-12	-8	-21	1,220	1,182	-14	-38
무급가족종사자	1,058	1,052	995	-23	-7	-57	1,005	975	-59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여성 연령별 상용근로자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6년 다른 연령계층에서 모두 전년동기대비 상용직이 증가하고 일용직이 감소했지만, 30대 초반 여성만 상용직(43천 명)이 감소하고 일용직(6천 명)이 증가했다(표 6 참조).

2016년 여성 취업자수의 증가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보건사회복지업이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은 감소 추세에 있다. 보건사회복지업의 여성 취업자수는 2016년 1~10월 전년동



〈표 6〉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수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기대비 증감(1~10월)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6
15~24세	상용직	19	45	27	17	50	25	21
	임시직	-16	0	13	-10	-7	12	10
	일용직	-34	-19	-31	-32	-21	-30	-31
	고용원 있는 자영자	-1	-1	2	-1	-1	3	-1
	고용원 없는 자영자	-10	-3	-7	-12	-2	-7	5
	무급가족종사자	-4	5	1	-5	6	2	-8
25~29세	상용직	-19	-18	4	-22	-18	3	37
	임시직	-28	-14	-16	-31	-11	-20	5
	일용직	-5	1	-1	-7	0	0	-7
	고용원 있는 자영자	-3	1	2	-5	0	3	1
	고용원 없는 자영자	2	13	0	0	13	-1	-3
	무급가족종사자	2	-2	1	2	-3	0	2
30~34세	상용직	72	11	-14	78	10	-10	-43
	임시직	-19	27	-24	-21	30	-29	-2
	일용직	-7	-11	0	-7	-12	-1	6
	고용원 있는 자영자	3	-5	-5	4	-4	-4	4
	고용원 없는 자영자	-4	-4	8	-3	-5	8	-5
	무급가족종사자	-1	-4	-5	1	-4	-5	-6
35~39세	상용직	12	23	29	9	24	28	56
	임시직	-39	-7	3	-45	-6	1	12
	일용직	-19	-2	-5	-20	-3	-3	-17
	고용원 있는 자영자	-5	5	-1	-6	5	-1	-1
	고용원 없는 자영자	4	-4	-17	5	-4	-14	-5
	무급가족종사자	-4	-8	-11	-5	-8	-12	-1
40~49세	상용직	93	71	72	89	74	68	89
	임시직	-29	-22	-3	-24	-29	0	-51
	일용직	-33	-22	-12	-36	-23	-9	-18
	고용원 있는 자영자	-2	11	-2	-3	10	-1	-13
	고용원 없는 자영자	-19	-5	5	-18	-6	8	-29
	무급가족종사자	-18	-31	-27	-17	-31	-26	-18
50~59세	상용직	86	116	68	84	116	73	59
	임시직	5	11	31	2	12	28	22
	일용직	-6	-8	0	-3	-12	6	-24
	고용원 있는 자영자	15	2	22	15	3	22	-5
	고용원 없는 자영자	-4	-11	-6	-5	-11	-8	-11
	무급가족종사자	6	-2	-29	0	3	-31	-17
60세 이상	상용직	19	42	46	17	41	47	35
	임시직	63	66	62	64	65	58	65
	일용직	-19	-9	6	-18	-12	9	-7
	고용원 있는 자영자	3	-5	4	3	-4	2	11
	고용원 없는 자영자	6	-6	-7	7	-7	-3	-10
	무급가족종사자	7	-4	-29	9	1	-29	-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기대비 80천 명이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취업자수 증가는 사업시설관리 등 산업으로 38천 명이었고, 공공행정 등은 33천 명, 금융 및 보험업은 29천 명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큰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54천 명이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 등에서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청소직종의 50대 이상 취업자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업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수요의 증가로 여성 취업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향후 일자리 확대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 보건사회복지업에서의 여성 취업자수 감소 추세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수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자바우처 이용자수는 2013년 704,764명, 2014년 635,075명, 2015년 507,554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윤정향, 2016).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수 증가를 이끈 것은 50대 이상 임시직 증가와 40대 상용직 증가였다. <표 8>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업 종사 근로자 중 50대 이상 중고령자 취업자수는 증가세에

<표 7>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기대비 증감(1~10월)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6
농림어업	-8	-35	-46	-6	-32	-48	-37
공공부문	22	2	-18	20	6	-27	33
제조업	-13	37	27	-15	43	22	-8
전기가스	3	0	3	4	-1	2	1
하수폐기물	2	1	1	2	1	2	-4
건설업	-7	11	3	-10	12	5	-7
도매 및 소매업	17	57	45	14	52	58	-54
운수업	2	1	5	3	1	3	15
숙박 및 음식점업	29	40	67	28	36	70	25
출판영상방송	4	12	8	4	11	8	17
금융 및 보험업	5	-13	-30	6	-10	-37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12	18	1	13	17	14
전문과학 등	10	33	23	7	33	25	23
사업시설관리 등	14	1	36	16	1	29	38
교육서비스업	-14	28	12	-16	28	11	20
보건사회복지 등	123	96	64	119	90	67	80
예술스포츠 등	-11	-1	26	-14	1	24	7
협회 등	14	40	-5	12	44	-3	-26
가구내고용	7	-55	-32	12	-57	-33	-12
국제 및 외국기관	0	2	-1	0	2	-1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있지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 추세에 있고, 감소폭 또한 증가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상용직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지만 임시직은 증가했다. 50대 이상에서 전년동기대비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직이 증가한 것을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의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일자리에서 단기계약의 임시직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대에서 보건사회복지직 일자리는 상용직에서 증가하고 있는

〈표 8〉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보건사회복지업 여성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1~10월)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6
연령	15~24세	-2.3	-13.1	3.5	-1.1	-14.1	4.7	16.2
	25~29세	11.1	25.0	-6.9	10.4	25.3	-5.8	-15.0
	30~34세	18.3	0.8	-7.2	19.3	0.4	-4.4	-14.4
	35~39세	-3.6	9.8	10.8	-2.7	8.5	10.0	9.0
	40~49세	28.7	20.0	30.7	28.6	18.4	34.6	9.2
	50~59세	28.8	44.3	17.2	24.7	44.5	17.5	30.0
	60세 이상	27.4	45.9	38.4	26.7	44.1	40.0	33.1
종사상 지위	상용직	120.8	84.2	52.5	124.7	81.0	61.0	44.0
	임시직	-16.0	44.7	29.1	-20.3	41.0	30.5	35.7
	일용직	-4.8	-1.9	2.6	-6.3	-2.0	2.5	1.0
	고용원 있는 자영자	6.6	8.3	3.7	6.4	8.1	4.8	-11.3
	고용원 없는 자영자	0.3	0.3	1.0	0.2	0.3	1.4	-2.2
	무급가족종사자	1.7	-2.5	-2.6	1.6	-2.2	-3.1	0.9
상용직	30~34세	24.6	-6.1	-2.4	25.9	-6.0	-0.3	-8.8
	35~39세	4.1	8.0	6.8	6.1	6.4	6.5	7.1
	40~49세	35.1	16.1	20.6	34.4	17.0	22.1	24.6
	50~59세	24.4	30.6	18.4	24.3	29.7	20.8	9.9
	60세 이상	7.6	14.8	9.0	6.9	14.4	10.0	6.5
임시직	30~34세	-5.4	6.2	-4.4	-5.8	6.1	-4.6	-2.2
	35~39세	-3.0	0.0	4.6	-3.2	-0.1	4.3	0.3
	40~49세	-7.3	2.4	8.3	-6.8	0.3	10.2	-9.3
	50~59세	-0.6	14.8	-5.3	-3.8	15.8	-7.0	21.0
	60세 이상	18.2	28.8	29.2	17.9	27.1	30.0	27.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세는 201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를 통해 2016년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6년 주된 일자리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취업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7.79%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년 동기대비 45천 명 증가하여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초단시간 취업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초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2016년 1~10월 60세 이상 16.27%로 2015년 15.56%에서 0.71%p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고령자층 취업자의 일부는 초단시간 근로형태에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연령층은 30대 초반으로 10.68%이고 2015년 9.63%에서 1.05%p 증가했다. 30대 후반도 초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8.71%로 2016년에 전년동기대비 초단시간 취업자수가 15천 명 증가했다. 30대 초반 다음으로 15~24세 청년층이 10.36%로 바짝 뒤를 쫓고 있으나 2015년 10.42%에서 다소 하락한 수치이다.

초단시간 취업은 종사상 지위에 상관없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임시직에서 증가폭이 컸다. 2016년 1~10월 상용직에서 초단시간 비중은 4.48%, 전년동기대비 14천 명이 증가했다. 초단시간 취업자수의 증가는 임시직에서 37천 명으로 상용직보다 더 컸다. 일용직은 2016년 초단시간 근로자수가 전년동기대비 4천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취업자 가운데 17.27%를 차지했다.

그 밖에 초단시간 취업은 유배우 여성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증가폭이 크다. 유배우 여성에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수가 2016년 전년동기대비 29천 명 증가하여 미혼 여성이나 이혼/사별 여성보다 증가폭이 컸다. 여성취업자수 증가폭이 가장 높은 보건사회복지업은 제조업보다 2016년 1~10월 평균 초단시간 근로 취업자 비중이 더 높았고 2013년 이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보건사회복지업은 6.69%에서 9.03%, 제조업은 3.46%에서 3.88%). 또한 보건사회복지업에서 2015~2016년 사이 전년동기대비 초단시간 근로 취업자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이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정규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초단시간 일한다는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일자리의 정규 근무시간이 단시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초단시간 일한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2016년 1~10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가운데 50.90%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을 일하고 있었고, 2015년 43.43%에서 약 7.5%p가량 증가했다. 이는 사용주가 전형적인 장시간 근로스케줄이 아닌 단시간 근로 형태로 인력을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16년 1~10월 초단시간 취업자 가운데 정규 근무시간이 짧아서 짧게 일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상당수는 근로시간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89.11%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6.03%만이 '현재보다

〈표 9〉 주요 특성별 여성의 주된 일자리의 초단시간(15시간 미만) 취업자 증감 및 분포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증감 (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1~10월) (비중)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6
전 체		42 ( 7.59)	13 ( 7.52)	5 ( 7.43)	34 ( 7.74)	14 ( 7.67)	-4 ( 7.50)	45 ( 7.79)
연령	15~24세	0 (12.85)	-6 (11.47)	-5 (10.55)	1 (12.73)	-3 (11.64)	-8 (10.42)	-1 (10.36)
	25~29세	2 ( 5.23)	-3 ( 4.99)	-8 ( 4.31)	2 ( 5.45)	-4 ( 5.1)	-8 ( 4.4)	2 ( 4.5)
	30~34세	-1 ( 8.73)	3 ( 8.97)	7 ( 9.62)	0 ( 8.9)	3 ( 9.2)	5 ( 9.63)	7 (10.68)
	35~39세	-4 ( 7.41)	3 ( 7.7)	-1 ( 7.68)	-9 ( 7.42)	5 ( 7.92)	-2 ( 7.76)	15 ( 8.71)
	40~49세	13 ( 5)	-5 ( 4.77)	0 ( 4.74)	12 ( 5.21)	-6 ( 4.95)	0 ( 4.92)	-1 ( 4.9)
	50~59세	13 ( 4.93)	-7 ( 4.41)	0 ( 4.27)	13 ( 5.06)	-8 ( 4.49)	2 ( 4.42)	-3 ( 4.22)
	60세 이상	20 (14.73)	29 ( 15.8)	10 (15.71)	16 (14.94)	27 (15.84)	7 (15.56)	27 (16.27)
종사상 지위	상용직	7 ( 4.49)	-2 ( 4.18)	11 ( 4.23)	7 ( 4.76)	-2 ( 4.42)	8 ( 4.4)	14 ( 4.48)
	임시직	41 (11.04)	26 (11.72)	4 (11.57)	32 (11.11)	31 (11.94)	-4 ( 11.6)	37 ( 12.6)
	일용직	-5 (16.43)	-6 (16.56)	-8 (15.75)	0 (16.79)	-7 (16.87)	-8 (15.89)	-4 (17.2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 ( 2.46)	0 ( 2.41)	0 ( 2.29)	1 ( 2.55)	-1 ( 2.21)	2 ( 2.5)	-2 ( 1.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 (13.25)	-5 (12.97)	-3 (12.92)	-4 (13.15)	-6 (12.73)	-2 (12.68)	0 (13.05)
	무급가족종사자	0 ( 0)	0 ( 0)	0 ( 0.02)	0 ( 0)	0 ( 0)	0 ( 0.02)	0 ( 0.03)
결혼 상태	미혼	0 ( 6.45)	-2 ( 6.11)	4 ( 5.92)	0 ( 6.51)	0 ( 6.24)	0 ( 5.91)	5 ( 5.92)
	유배우	31 ( 7.19)	0 ( 7.09)	4 ( 7.18)	28 ( 7.37)	-1 ( 7.26)	0 ( 7.29)	29 ( 7.67)
	이혼/사별	11 (11.67)	15 (12.16)	-4 (11.33)	6 ( 11.8)	15 (12.29)	-5 (11.33)	10 (11.86)
산업	보건사회복지업	8 ( 6.61)	26 ( 8.08)	7 ( 8.24)	4 ( 6.69)	25 ( 8.13)	8 ( 8.3)	18 ( 9.03)
	제조업	0 ( 3.36)	-4 ( 2.92)	7 ( 3.37)	1 ( 3.46)	-5 ( 2.99)	5 ( 3.34)	7 ( 3.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0〉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증감 (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1~10월) (비중)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6
15시간 미만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30 (24.01)	30 (27.35)	31 (43.48)	24 (23.92)	33 (27.57)	24 (43.43)	60 ( 50.9)
	건강	-3 ( 7.46)	-2 ( 7.1)	-33 ( 4.2)	-3 ( 7.42)	-2 ( 7.06)	-33 ( 4.32)	-5 ( 3.26)
	육아	4 (10.38)	1 (10.38)	-60 ( 4.1)	3 (10.05)	2 ( 10.1)	-60 ( 4.01)	5 ( 4.63)
	가사	15 ( 7.99)	6 ( 8.55)	-26 ( 7.52)	14 ( 7.82)	7 ( 8.55)	-26 ( 7.73)	-6 ( 6.3)
	통학	-4 ( 8.89)	-1 ( 8.65)	-12 (10.01)	-1 ( 8.55)	0 ( 8.39)	-11 (10.13)	-15 ( 7.11)
	본인이 원해서	13 (12.07)	-9 (10.81)	-3 (14.64)	13 (12.01)	-8 (10.79)	-7 (14.23)	9 (14.96)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13 (10.67)	-3 (10.08)	-1 (13.82)	-17 (10.27)	-4 ( 9.59)	3 (14.14)	-14 (11.16)
	기타	-1 (18.53)	-9 (17.08)	-125 ( 2.23)	1 (19.97)	-14 (17.95)	-136 ( 2.02)	-1 ( 1.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라고 응답했다.

## IV. 맺음말

2016년 여성 노동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두드러지게 개선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 증가에서 남성보다 성적표가 좋았지만 고용률은 50.2%로 전년대비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한 여성 고용률 10% 제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성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어 내년 여성 고용률 전망도 밝지 않다. 2016년에도 연령, 종사상지위, 산업, 근로시간 등에서 지난 몇 년간 나타난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적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55세 이상 중고령자였고,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출산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가 뚜렷한 패턴

없이 정체 상태에 있다. 이들 연령층을 표적으로 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아직까지 취업자 수 증가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30대 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M-자형의 곡선의 저점이 2016년에 상당히 올라간 것은 향후 경력단절 현상 완화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 여성 취업자 수는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40~50대에 집중되었고, 30대 초반 청년 여성의 일자리 불안 정성은 심화되었다. 2016년 여성 취업자수의 증가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보건사회복지업이었으나 증가폭은 감소 추세에 있고, 50대 이상 임시직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여성 취업자수의 증가세 둔화는 그동안 대폭적인 재정지원 확대에 힘입은 보건사회복지업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단시간 취업자수의 증가세는 2016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청년층과 고령자층, 임시직, 유배우 여성 집단에 대해 사용자가 초단시간 근로 형태로 인력을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2016년의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은 향후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률 제고, 청년여성의 일자리의 질,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성 인력의 잠재적 수요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KLI**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4. 2),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 \_\_\_\_\_ (2014. 9),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 윤정향(2016), 「바우처서비스 공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년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2016. 11. 24.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